

60년 인생 그은 곡선... 희노애락 그래프

자양복지관 '인생수업' 현장

굴곡진 곡선. 단순한 선이었지만 그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인생 그래프 이야기다.

4월 15일 서울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삼)의 한 교실. 열 두명의 어르신들이 인생곡선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나이대별로 기억나는 일을 표시하고 선으로 잇는 작업이었다.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기쁨(위)과 슬픔(아래)이 우여곡절처럼 요동쳤다. 좋기만했던 인생도 나쁘기만했던 인생도 없었다.

'인생수업'은 광진구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생을 되짚어 보며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수업. 지난 3월부터 개강하여 총 16회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며 다채롭게 수업이 진행된다. 주변인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고 버킷리스트도 작성하는 등 노년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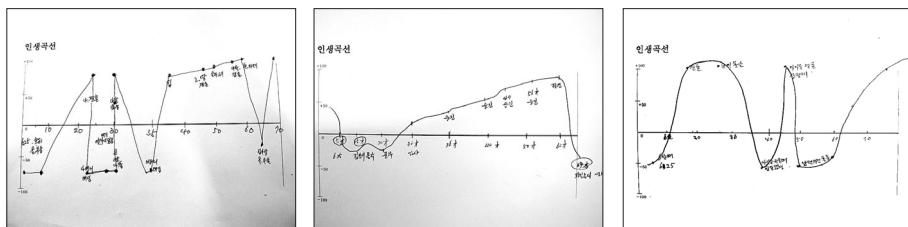
현재 두 반으로 나뉘어져 진행되는 인생수업 수강생은 총 40명. 꽃잎이 가느다란 결석한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였으니 이만하면 좋은 출석률이다.

10분 남짓 자신의 기억을 돌아다본 어르신들은 60년 전의 기억도 엇그제 같다. 4세 무렵 이불에 오줌을 싸서 어머니께 혼난 기억도 그대로. 시집을 당시 고향 생각에 울기만 했던 스무살,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날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돌아다본 어머니의 애잔한 얼굴, 마음이나이는 이팔청춘이러던 어르신들에게 삶이란 장면장면의 연속이었다. 기억은 늘지도 않았다.

저마다 그런 그래프를 한 사람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는 승진이, 어떤이



인생수업 참가 어르신들이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인생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세 어르신들이 그린 각각의 인생그래프. 기쁨(위)과 슬픔(아래)이 교대로 반복된다.

행복한 노후 위해 인생수업 개설 인생그래프 작성하며 인생 재점검 경험공유 통해 참석자간 공감대 형성

에게는 가족의 일생이 그래프 선안에 녹아 있었다. 공통점도 있었다. 60대 후반의 어르신들 기억은 6.25 전쟁과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은 그래프를 아래로 향하게 만들었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인생수업이 어르신들에

게 기회를 작게나마 만들어준다 생각해요.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자기표현에 능하지 못한 어르신 세대가 그 자체로 마음을 위로 받을 수도 있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우지민 사회복지사는 인생수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인생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지만,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다. 거듭 수업이 진행되면서 참여자도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 4회기로 진행되던 수업에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보다 큰 커리큘럼으로 넓혔다. 이에 대해 돌아보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본 후 웰빙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학기가 끝나는 6월에는 마음 비움 여행, 템플스테이가 예정돼 있다.

인생수업에 아내와 함께 참여한다는 강신호(68) 어르신은 "살을 되돌아보는 시기에 이르다 보니 내 인생을 훑어보고 싶었다"며 "자식에게 모범이 되도록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느 그래프처럼 강 어르신의 그래프도 롤러코스터마냥 생이 굽이져 있었다. 백일 갓 지난 둘째 딸 아이를 보냈던 기억, 죽은 아이를 안은 채 밤을 새웠던 어머니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하지만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없이 기쁘고 알뜰살뜰 모아 내 집장만을 했을 때는 가슴이 후련했다. 결혼한 아이들이 안겨준 존중을 목욕시켰던 시간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힘들었던 시간, 즐거웠던 기억을 점으로 찍고 있다 보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내야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업의 끝자락, 수업을 이끈 이지원 강사(동국대 평생교육원 마음치유 강사)는 어르신 한분 한분의 삶에 박수를 보냈다. 힘들어도 삶을 내맡기지 않고 60년을 차곡차곡 살아온 것에 대한 존경의 인사였다. 어르신들 역시 자신과 서로의 삶에 대해 박수를 더했다.

어르신들은 가느다란 선 안에 깃든 인생을 되짚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마음으로 하루를,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나 아닌 너를 위한 절' 쾌유 발원

조계종복지재단 장애인·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봉황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4월 19일 '국내의 장애인·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4월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조계사에서 진행된 철야정진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이날 정진에는 조계종자원봉사단, 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일반 신도, 후원자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향후 경기 용주사, 경북 직지사, 양산 통도사, 의성 고운사, 고창 선운사, 여주 신륵사 등 6곳에서 일 반 신도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천 배 릴레이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국경을 뛰어넘는 부처님의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국내 장애인·난치병 환아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백혈병 어린이들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3000배 철야정진은 지난 13년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북한 장애인 재활, 저소득·실직자 자녀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650여명에게 6억2천여만 원 상당을 지원해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병원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난치병 어린이 32명을 추천받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내빈과 1,000여명의 불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나를 위한 절이 아닌, 너를 위한 절과 쾌유발원"을 기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 배우 김성녀씨도 참석해 환아의 쾌유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세상의 파스함을 느끼기도 전에 난치병으로 장기간 고통으로 신음하는 어린이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부처님 품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유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모금은 5월 봉축 기간 동안 계속된다. (02)723-5101,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배현진 기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법률자문단 위촉

4월 10일, 변호사 9명 임명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월 10일 한부모가족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법률자문단은 양소영 변호사(양소영 법률사무소)를 비롯하여 9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최근「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지원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한부모가족이 이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단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은 4월 10일 한부모가족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두리모·부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홍천군장애복지관, 장애인식교육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에 나섰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인권을 설명하고 직접 장애인의 어려움을 경험해보는 교육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리없는 동영상과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느끼고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 게임을 하며 지체장애를 경험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측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체험에 임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교육을 진행했다. 홍천군내 청소년을 4월 한 달 동안 홍천군내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수업을 시행한 것이다.

관문사, 어린이 글·그림 축제



지난해 진행된 우면산 어린이 축제

서초구립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운)과 대한불교전태종 관문사(주지 변춘평)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제7회 우면산의 꿈! 어린이 글·그림 축제'를 개최한다.

5월 5일 우면동 바우미로 7길부터 관문

사 우면산 부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로 꾸러질 예정이다.

'나의 꿈과 희망'을 주제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개최되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나눔마당, 각종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출품된 글·그림 작품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상, 서울시교육감상, 서초구청장상 등의 수상도 이루어진다.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대상은 6~13세 아동이다. 대회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02)577-6321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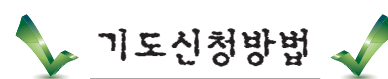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